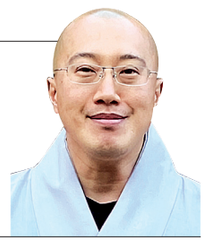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휘둘리지 않는 삶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올해 상반기 화두 '가상 화폐'
이상투자 광풍에 우려 · 염려

일론 머스크 말에 시세 요동
대중 희비 갈리며 분노 표출
낮선 시대 의지처 없음 방증

'자등명 법등명' 유훈 상기를
주인공 돼 주체적 삶 살아야

'암호화폐 폭락' '가상화폐시대 끝났나?' 'ㅇㅇ코인교의 노예' 최근 각종 미디어와 뉴스 등에 등장하는 헤드라인의 내용이다.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연일 가상화폐의 이야기로 뜨겁다. 가히 2021년의 화두는 '가상화폐' 인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이 결코 낯설지 않다. 불과 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온통 주식이야기뿐이었다. '영끌' 'S전자 주식시세' 등 전 국민 모두가 주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죽하면 '동학개미' 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겨울의 추위를 녹여버린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다. 그리고 이제 그 광풍은 가상화폐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열풍이 결코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행동이 제약받고 대면이 극도로 주의되는 현실 속에서 투자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살아가려는 의지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을 너무나도 지나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가야산 깊은 산중에 사는 필자의 귀에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 투자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과연 이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해야만 하는지 오히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아마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SNS에서 한 말을 마치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듯 모두가 몰려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날개를 잃고 추락하듯 그 가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일론 머스크로 돌려 그 탓을 하며 매일같이 한숨만을 쉬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론 머스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함께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어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낯선 시대 속에서 의지처를 잃고 헤매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핑계의 대상을 찾고 남 탓만을 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기조차도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먼 길의 끝을 응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두커니 서있기만 한 자신을 남의 핑계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 지금 당장 눈떠서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고 길 위에 서있는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였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사태도 어느덧 중후반부를 향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름부터 '노마스크' 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떠한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할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유언인 '자등명 법등명' 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연기법)을 등불로 삼아 칠흑같이 어두운 삶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등불' 의 표현은 '섬' 으로도 해석한다. 즉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불확실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결정에 의해 바른 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삿된 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과 시대를 탓하며 머무르고만 있을 수 없다. 한 생각 일으켜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간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가오는 매순간을 직시하며 이번 여름안거를 우리 자신을 위해 뜨겁게 보내야겠다.

社 說

〈불교성전〉 수지독송에 동참하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월 발원한 〈불교성전〉 법보시 불사에 참여하는 불자대중의 열기가 뜨겁다. 1명의 불자가 3명에게 〈불교성전〉을 추천하면 다시 그 3명이 각자 3명에게 〈불교성전〉을 추천하는 불교성전 챌린지가 4차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불교성전〉 구입을 인증하고 있다. 또 서울 연화사가 수지독송 모임을 구성하고, 전국 사찰들이 법회 법문 자료와 교양대학 교재로 활용하는 등 〈불교성전〉을 다각도록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은 기존에 유통된 불교성전들이 한역대장경에 기초를 두었던 것에 비해 현대불교학의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반영했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주제별 키워드를 선정해 구성했기에 법회나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성전 자체의 특성으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운동을 더욱 장려하고,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도 읽기모임 등이 일기 위해서는 독송대회, 독후감 대회, 교육 정규커리큘럼에서의 편입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학장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니 기대해볼 만 하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신행의 중심이 될 경전을 찾아왔다. 〈금강경〉 〈법화경〉 등이 있지만 오래된 경전의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우리말로 현대적 편집이 가미된 〈불교성전〉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포교 · 신도 단체들과 함께 법보시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한권의 성전이 한명의 포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지하며 우리 함께 〈불교성전〉 보급과 활용에 앞장서자.

사회화합 해치는 왜곡된 신앙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에서 선교를 명목으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들이 결국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시설 종무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종무원 56명은 개인 연명을 통해 개신교인들을 고소하면서 '선교난동' 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종무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개인교인들의 행태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불교폄훼 발언 및 과도한 선교행위, 훼불, 종교비하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개신교계의 도넘은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자들의 마음에 상채기를 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이웃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선교행위, 선교난동이야말로 종교평화를 해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때문에 종무원들의 고소 조치는 이제 더 이상의 '관용' 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번 고소가 개신교계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종교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왜곡된 신앙심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무원들의 고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사회 곳곳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 혹은 일부 단체를 향한 단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인식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정책으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신교인들의 왜곡된 신앙심으로 불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발원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아들 일으킨 母情

몸이 불편하신 스님을 모시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후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원내 식당을 찾아 들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스님"하고 부른다.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 바로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한 보살이었다. 눈에 반가움의 눈물이 금새 맺히는 것을 보며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어쩐 일이세요"하고 물으니 "아들 외래진료차 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꼭 스님 같다고 하니 우리 아들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려 온 겁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방문뿐 아니라 병원의 출입까지 힘들었던 지난해 8월 경, 한 봉사자로부터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실을 방문했다.

아들이 병석에 누워있고 보호자인 어머니가 보조침대에 앉아있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들의 차가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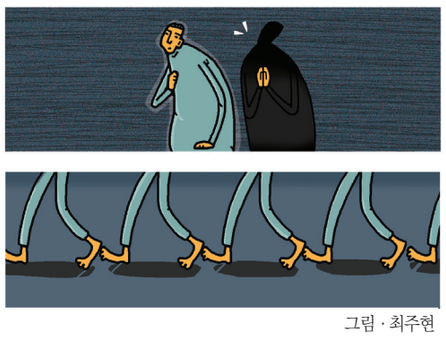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보살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어느 날 보살은 '마음이 아파도 자식 앞에서 몇 번이나 뜨거운 눈물을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그냥 눈물이 나오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힘내십시오. 보살님이 강건하셔야 아드님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코로나 상황이라 아픈 마음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위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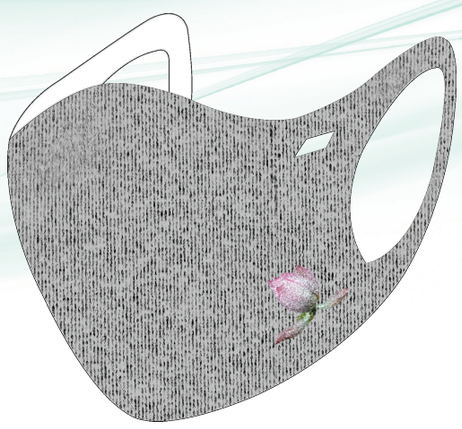
보살은 '불교법당' 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종교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길 바라는 병원 측 입장이 있었기에 법당을 패쇄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보살은 법당 문 앞에서 기도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법당 문만 개방해 놓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을 찾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기도였으리라.

다음 달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을 전전하며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어느새 일 년이 되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적을 이뤄졌다. 걷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뛰어넘어 좌절에 넘어진 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결국 아들은 한 걸음씩 난간에 의지한 채 걷기 시작했다. 나는 법당 부처님께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이 병원 내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불자의 소식과 아들을 일으킨 어머니의 정성을 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